



‘미투’ 물결에 페미니즘 도서 열풍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페미니즘 관련 도서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내부의 성추행을 폭로한 이후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비롯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등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항간에 불거진 데이트폭력, 여성 혐오 등과 같은 페미니즘 이슈 등과 맞물린 점도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분석됐다.

예스24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지난 4월 8일까지 페미니즘 도서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78.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의 구매가 각각 25.9%, 1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40대 여성들의 구매량도 21.1% 늘어 페미니즘 관련 도서의 인기를 반영했다. 여성 구매 비중은 전체의 79.5%로 남성(20.5%)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책과 관련 도서 판매량이 늘 것으로 드러났다.

손민구 예스24 사회정치 MD는 “작년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판매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나쁜 페미니스트’와 같은 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부제가 붙은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는 성차별을 주제로 한 대화에서 여성들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거나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저자 이민경은 차별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는 없으며, 무지한 말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줄 언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쁜 페미니스트’는 2014년 미국에서 출간 후 페

여성 전 연령대 걸쳐 판매량 증가

‘82년생 김지영’ 스테디셀러로

‘페미니즘의 도전’ 이례적 14쇄 발간

미니즘 열풍을 일으킨 책이다. 저자 룩산 게이는 여성 혐오가 결코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강간이 아무렇게나 등장하는 대중문화에 대해 질타하면서 페미니즘으로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교보문고 관계자도 미투 운동이 심화될수록 페미니즘 관련 또는 여성학 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지난 4월 8일까지 페미니즘 도서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143.9% 증가했다.

최지환 인터넷교보문고 MD는 “페미니즘의 도서 판매는 20~30대 여성 독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전 연령대 양적인 성장도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전년 동기(1월~3월) 대비 여성 독자 평균 153%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 초반 여성 독자들이 190%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당초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을 비롯, 리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등 책이 상승세를 탔다.

‘82년생 김지영’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한 여성이 받았던 차별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2016년 10월 발행 이후 현재까지 50만 부가 넘게 팔린 대표적인 페미니즘 도서로 자리잡았다. 반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가르치기를 일삼는 일부 남성들의 우스꽝스런 일화를 토대로 성

별, 경제, 인종, 권력으로 양분된 세계의 모습을 묘사한다.

지난해까지는 소설이나 에세이 등 자기 고백적 페미니즘 도서가 인기를 끌었다면 지금은 점차 난이도가 있는 도서를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미투에 대한 관심을 넘어 독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여성학자 정희진의 책 ‘페미니즘의 도전’은 인문서로는 이례적으로 14쇄를 찍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보도록 안내한 책으로 ‘페미니즘의 교과서’라고 불린다. 저자는 페미니즘은 투쟁과 쟁취가 아닌 협상과 사유, 공존과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당해 온 우리 사회의 ‘다른 목소리’들이 서로 경쟁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며 소통과 공존을 이야기한다.

성폭력 피해 고발을 어떻게 사회 변화로 이끌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도 있다. 권김현영이 엮은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은 성폭력은 누구, 혹은 무엇의 문제가 아닌 ‘권력과 폭력’의 문제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 책이다. 한국 사회 만연한 ‘강간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지’ 들려다본다.

한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의 시작과 흐름을 기록한 ‘근본없는 페미니즘’은 김익명 외 다수의 필자들이 참여해 펴낸 책이다. 온라인 펀딩을 통해 773인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현재 벌어지는 미투, 위드유와 같은 폭풍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할 뿐 아니라 비판과 대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랑시문학상, 고재중 시인 ‘꽃의 권력’ 선정

제15회 영랑시문학상에 고재중(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꽃의 권력’.

영랑기념사업회(회장 송하훈)는 지난달 이형권·배한봉 시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영랑시문학상 심사를 갖고 고재중 시인의 ‘꽃의 권력’(문학수첩 7월)을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계간 ‘시작’, (사)영랑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영랑시문학상은 현대문학사에서 순수시정신을 개척한 영랑 김윤식(1903~1950)의 생애와 문학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됐다.

심사 위원들은 “고재중은 절제된 언어 표현과 토속어 구사, 음악성을 특성으로 하는 시를 주로 창작하는 중진 시인으로서 영랑시문학상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시인이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영랑생가에서 열리는 제15회 영랑문학제 개막장에서 수여되며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4월의 노래’... 13일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가 13일 오후 7시 광주예술회 방울소리공연장에서 108회 가곡부르기 공연을 연다.

이달의 배우는 노래는 최동호 시에 한성호가 곡을 붙인 ‘문득 생각난 사랑’이다. 주제도 역시 ‘문득 생각난 사랑’이다

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로는 해마다 4월이 되면 누구나 흥얼거리보는 봄 노래 ‘4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그 집 앞’, ‘옛 동산에 올라’, ‘동무생각’을 준비했다. 정다운 노래로는 ‘벚꽃’ ‘알레오’를 준비했다.

마지막 사랑의 노래로는 ‘첫사랑’과 ‘목련화’를 부른다.

꿈나무 연주로는 이재운(문산중 1)이 ‘언덕을 넘어서’, 임서령(문산초 5)이 ‘종이배’를 연주하며, 회원연주에는 서해란, 박상휘, 박원자, 박안수, 최해훈, 나인희, 김우진, 심옥호, 남신 씨 등이 참여한다.



또 낭송가 노경호 씨가 백석의 ‘고독’을 낭송한다. 초청연주로는 소프라노 박계(사진) 씨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과 ‘학’을 선보인다. 박 씨는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독일, 러시아 등 국내

외에서 독창회 등 총 550회 공연에 출연했다. 한국가곡 모음, 외국가곡 모음, 박계 애창곡 모음 등 음반활동을 비롯해 현재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명예교수로 활동중이다.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아이들 교실된 도심 곳곳 광주폴리

광주비엔날레가 진행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인 광주폴리가 지역 초등생들에게 창의성을 높여주는 교실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7일 광주폴리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초등학생 3~6학년으로 구성된 광주교육대학교 과학반과 수학반 140여 명은 오전 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집결해 소형 건축물인 광주폴리를 둘러봤다.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과학반은 ‘문화속 과학 향연’을 주제로 ‘기억의 상자’와 ‘광주사랑방’, ‘열린공간’, ‘투표’, ‘99칸’, ‘유동성조절’, ‘열린 장벽’ 등 광주폴리 I 과 II를 둘러봤다.

수학반은 ‘어플을 이용한 광주폴리 탐험’을 주제로 서석초 앞 ‘아이라브스트리트’, ‘잠망경



폴리 '기억의 상자'

과 정자’, ‘소통의 오두막’, ‘서원문제들’, ‘기억의 상자’, ‘광주사랑방’, ‘열린공간’, ‘열린장벽’ 등의 수학적 요소를 지닌 광주폴리를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문의 062-608-42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 오페라 ‘사랑의 묘약’ 13~14일 무료 공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가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e)’으로 두 번째 오페라 무대를 선보인다.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3시·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이번 공연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광주는 행과 전남대 총동창회의 후원을 받아 준비했다.

2막으로 구성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돈 파스칼레’,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상연되는 도니체티의 3대 명작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작품 배경이 되는 19세기

이탈리아 대신 1980년대 중반 광주 민주화 운동 후의 전남대학교를 무대로 펼쳐지는 게 특징이다.

이해정 총감독을 비롯해 예술감독 공병우, 지휘 박인욱, 연출 이강호, 합창지휘 황유순 등이 참여했다. 내모리노 역에는 김태연·김주형·서재원이, 아나니 역에는 윤세희·문현영·이주은이, 벨코레 역에는 정호석·김권재·조인하가 출연한다. 이밖에 전남대학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등 총 150여 명이 출연할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530-3030, 039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마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oticon PEOPLE FIRST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NEW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